

셀트리온 '베그젤마', 핵심품목 자리매김... 항암제 시장 주력

베그젤마, 지난해 연매출 2212억
美 비중 34%, 시장점유율 6% 기록
유럽·日 등 글로벌 시장서 성장세
바이오시밀러·ADC 신약개발 박차

셀트리온이 항암제 영역에 주력해 캐시카우를 확보했다. 바이오시밀러부터 항체·약물접합체(ADC) 기반의 신약까지 후속 파이프라인을 폭넓게 구축한 것이다.

셀트리온은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맵)'가 자사 핵심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베그젤마는 지난해 연매출 2212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1분기 35억원, 2분기 40억원, 3분기 69억원, 4분기 77억원 등으로 매분기 매출 증가세를 지속했다.

베그젤마 전체 매출에서 미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달한다. 미국 판매 1년 만에 총 758억원의 매출을 냈다.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는 베그젤마는 지난해 말 미국에서 6%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미국 베바시주맵 바이오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맵)'

/셀트리온

시밀러 시장에서 베그젤마는 네 번째로 출시된 후발 주자로서, 베그젤마 처방은 공공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공공 의료보험 규모는 미국 의료보험의 11% 수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은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대상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메디케어는 정부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보험사 처방집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제 환급이 가능하다. 셀트리온은 이러한 메디케어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판

매 전략을 펼쳤다.

셀트리온은 베그젤마가 앞서 유럽, 일본 등에서 제품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향후 미국에서도 매출 성장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베그젤마는 유럽에서도 경쟁 제품 대비 2~3년 늦은 후발 주자로 베바시주맵 시장에 진입했는데 최근 시장점유율 1위에 올랐다. 지난해 3분기 유럽에서 전분기 대비 9%포인트 증가한 29%의 점유율로 시장 선두에서 오리지널 및 경쟁

바이오시밀러 제품들과 격차를 벌렸다. 또 지난해 말 일본에서는 출시 1년 만에 베바시주맵 시장점유율 23%, 처방 2위 등을 기록했다. 베그젤마 일본 출시 1년 만의 성과다.

베그젤마 성장세가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쥬마' 처방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트룩시마와 허쥬마 지난해 매출은 각각 4500억원, 1970억원이다. 각각 전년 대비 1133%, 129%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트룩시마는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31%, 30%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 허쥬마는 일본에서 72%, 유럽에서 29%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유지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후속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CT-P51', 다발골수종 치료제 'CT-P44' 등을 개발하고 있다.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인 면역항암제 CT-P51도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다. 표적항암제 CT-P44의 경우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로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글로벌 임상 3상 진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았다.

셀트리온이 올해부터 속도를 내고 있는 항체·약물접합체(ADC) 기반 신약 개발도 항암제 시장을 정조준한다.

셀트리온은 올해 'CT-P70' 임상 1상에 착수해 환자 투여를 개시할 예정이다. CT-P70은 비소세포폐암, 대장암 등을 적응증으로 하며 암세포에서 활성화된 종양 성장을 촉진하는 세포성장인자 수용체를 표적하는 기전을 갖췄다.

셀트리온은 방광암 신약 후보물질 CT-P71과 CT-P72, CT-P73 등 고형암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준비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기존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경우, 베그젤마가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팔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후속 연구개발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부광약품, 1000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2030년 20위권 제약사 도약 목표"
시설자금·신약 연구개발에 사용
콘테라파마 지원 자본투자도 추진

부광약품이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30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부광약품이 공시한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모집가액은 1주당 3310원으로 총 3021만주를 모집해 모집총액은 999억9510만원에 달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2030년 20위권 제약사 도약이라는 제2성장의 목표를 설정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상증자만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쿼터점프로 열매를 맺어 주주들에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약품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미래 성장을 위한 시설 자금 및 신약 연구개발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규 설비 도입과 기존 시설 확장에 총 845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공장을 인수하거나 제조처 영업권 등 무형

자산을 취득하는 데만 350억원을 활용한다. 향후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 340억원을 들여 연구 및 액체 제조 등을 재정비한다. 오는 2028년까지 생산능력을 기존 10억정에서 15억정으로 50% 늘려 공급 부족, 품질 등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부광약품은 부족한 생산 능력이 잠재적 매출과 영업이익 영향을 미쳐 수익성을 감소시킨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신 내용고형제 생산설비와 스마트 팩토리 개념을 적용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는 155억을 투입한다. 생산 효율성과 품질관리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약 155억원은 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집행한다. 시장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을 확보하고 신제품 개발, 기존 제제 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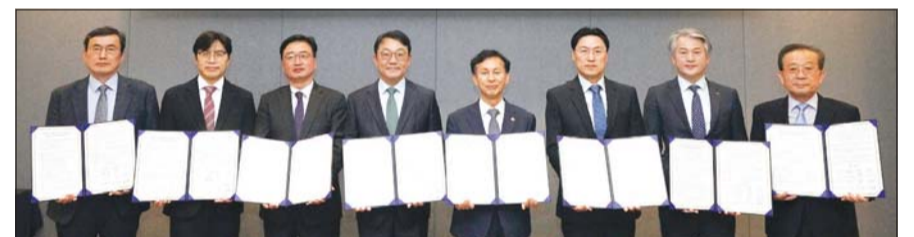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광약품이 설정한 전략 질환군은 중추신경계(CNS), 순환기, 당뇨, 호흡기, 소화기 등이다. 특히 부광약품은 조현병, 양극성장애 등을 적응증으로 한 항정신병 신약

라투다, 불면증 치료제 잘레딤, 우울증 치료제 익셀캡슐, 뇌전증 치료제 오르필 등을 내놓으며 중추신경계(CNS) 의약품 시장에 지속 집중해 왔다. CNS 의약품 사업은 지난해 전년 대비 42%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호실적을 견인했다.

아울러 자회사 콘테라파마의 신약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지분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부광약품은 콘테라파마를 통해 파킨슨병 치료제 JM-010, 파킨슨병 환자의 아침무동증 치료제 CP-012 등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부광약품은 유상증자를 위해 NH투자증권과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권 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했다. 신주배정기준일은 오는 6월 2일이며 확정 발행 가액 산정은 7월 3일에 이뤄진다. 이후 우리사주, 구주주, 일반 청약이 이어지고 7월 28일 신주 상장이 마무리된다.

한편 부광약품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16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6억원으로 전년 영업손실 375억원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당기순손실은 27억원으로 전년 당기순손실 344억원에서 적자 폭을 크게 줄였다. /이청하 기자



지난 2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5 어복버스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식'에서 HK이노엔 전략지원실 김기호 전무(왼쪽에서 세 번째),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K이노엔

HK이노엔-해수부, '어복버스' 사업 체결

어업인 의료·생활·행정 복지 서비스

HK이노엔이 지난 26일 해양수산부와 '어복버스(어촌 복지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복버스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섬·어촌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다. 의료, 생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심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섬 지역 어업인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진료 '비대면

섬 닥터'와 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운영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이미용, 목욕 등의 혜택을 갖췄다. 행정 분야에서는 어업인의 경영상 노무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HK이노엔은 원격진료 '비대면 섬 닥터' 사업 기금을 출연하고 임직원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HK이노엔은 지난해 7월에도 해양수산부와 '비대면 섬 닥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기금을 조성했다. /이청하 기자

조아제약 "1일 1구미로 현대인 활력 충전"

'조아 멀티비타민미네랄 구미' 출시

조아제약이 건강기능식품 '조아 멀티비타민미네랄 구미'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아 멀티비타민미네랄 구미는 에너지 생성을 위한 비타민B군 3종,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E,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셀렌, 정장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요한 아연, 뼈 건강과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망간, 산화·환원 효소의 활성에 필요한 미네랄 건조효모 폴리베타렌 등을 배합한 것이 특징이다.



조아 멀티비타민미네랄 구미

/조아제약

또 오렌지 맛과 향이 더해져 민감한 사람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조아제약은 1일 1구미로 바쁜 현대인이 활력을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엘레나', 연 매출 300억 돌파

여성·질 건강 유산균 新영역 구축

유한양행은 프리미엄 여성 유산균 브랜드 '엘레나'가 연 매출 300억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한양행이 지난 2015년 출시한 여성 유산균 엘레나는 국내 대표 프리미엄

여성 유산균 브랜드로 성장해 왔다. 장 건강 중심이었던 국내 유산균 시장에서 유한양행은 '여성 유산균', '질 건강 유산균'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했다.

엘레나는 여성의 질과 장 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유릭스프로바이오틱스를 주원료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

당 성분은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개별 인정형 원료다.

유한양행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산균 증식과 면역 건강을 위한 '엘레나퀀', 아이부터 어른까지 섭취할 수 있는 '엘레나 스틱'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했다. 올해 1월에는 신제품으로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 안정 효과를 주는 '엘레나 테아닌'도 추가로 선보였다. /이청하 기자